



◆ 수원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활동보고회를 마친 학생들.

# “우리 문화재 우리가 지킨다”

## 수원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활동보고회 열려

지난 12월 17일 저녁 수원 화성행궁 흥보관에서는 작지만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제1회 수원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활동보고 및 토론회'라는 이름의 이 행사는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수원 화성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80명 남짓의 초·중·고등학생과 교사, 시민단체, 학부모 등 20여 명이 함께 했다.

어린 학생들이 우리 문화재의 '지킴이'로서 지난 1년 동안의 활동내용을 함께 모여 나누는 자리였다.

이제 고3이 되는 고등학생을 비롯해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까지 연령도 성별도 다양한 이들은 어른들 못지않은 진지함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 문화재 관리의 현실과 문제점, 대안과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두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뜨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이날 행사는 열띤 보기에 다소 낮은 모습이었다.

갑수록 심해지는 입시경쟁 속에서 입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문화재'를 지키는 활동에 1년 동안 꾸준히 참여했다는 사실도 그렇거나와 그 활동을 정리하면서 전문가 보다 더 날카로운 눈으로 우리 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도 그랬다. 체험은도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 속에서 참여 학생들의 모습은 사뭇 진지했고 이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얼굴도 싱그러웠다.

###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문화...또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 해야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수원네트워크(가칭) 준비위원회(이하 문화재지킴이)가 주최하고 수원시자원봉사센터가 후원한 이 행사에는 수원지역 6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와 시민단체인 수원 KYC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기획, 보고서 작성, 진행 등 모든 것을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했다는 점에서도 특별한 행사였다.

행사를 주최한 고경화 수원KYC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현재의 우리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존하는' 마음과 이를 실천하는 활동이 또 하나의 자랑스런 문화로서 다음세대에게 전해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축사를 맡은 김창국 수원 청명고 교장은 “단순히 현재의 문화유산을 그대로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며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고 가꾸고 더 좋은 활용방안을 만들어 내는 모든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수원 지역 6개 학교 참여...전문가 못 지 않은 인목 돋보여

이날 행사는 수원KYC의 전체 활동경과 보고에 이어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수원 지역 6개 학교(신흥초등학교, 수일고등학교, 수원공업고등학교, 영복여자고등학교, 청명고등학교, 태장고등학교)의 학교별 활동보고, 학교별 활동 사례 발표,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모니터 활동보고는 지난 1년간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참여한 회원들이 어른들의 시각이 아닌 학생들의 눈으로 바라본 수원 화성행궁과 화성문화재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또 문화재에 대한 기성세대의 무지함과 그릇된 인식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모니터 활동보고는 지난 1년간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참여한 회원들이 어른들의 시각이 아닌 학생들의 눈으로 바라본 수원 화성행궁과 화성문화재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또 문화재에 대한 기성세대의 무지함과 그릇된 인식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수원 남창초 최현재(3학년) 학생은 “관광객을 문화재 훼손자로 만드는 축제”라는 주제의 모니터 활동 보고에서 ‘관광객을 문화재 훼손자로 만드는 축제’라는 주제의 모니터 활동 보고에서 ‘수원문화추진회’를 비롯한 문화재 관련 행사나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이 열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으며, 이윽기 학생(수원 영복여고 2학년)은 문화행사에 참석한 관광객들의 문화재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지적하고 본래의 취지를 잃고 상업적인 행사로 변질되

어가는 문화재 행사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민감한 마스키트 수원화성문화재 맞아요?”. 또 전승원 학생(수성고 2학년)은 “뭇바는 현수막활동 이제 그만”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화성문화축제 당시 문화재 주변에 서슴없이 붓을 박고 현수막을 내건 사진들을 제시하며 문화행사를 준비하는 어른들의 무지함을 비판했다.

수원 화성 성벽주변의 애완전 관리실태의 문제점을 제기한 정다은 학생(수원 영복여고 2학년)의 모니터 보고(‘성벽주변 개포수거 및 활동 발표’)는 발상의 참신함과 함께 때 묻지 않은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을 보여줘 눈길을 끌었다.

### 학교별 다양한 활동 사례 발표...자체 논문집 발간도

이밖에도 학교별 사례 발표에서는 수일고 2학년 김혜란 학생(‘정조대왕 능행길 체험순례를 다녀와서’), 청명고 1학년 이승희 학생(‘연구논문 발표를 통한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전문성 제고’), 수일고 2학년 신세원 학생(‘수원탄탄 기자 활동을 통한 문화재지킴이’), 수원공고 2학년 김태훈 학생(‘멘토와 청소년 문화재지킴이’)의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수원 청명고는 김창국 교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교사(장미애, 정희림 교사)들의 열정속에 학생들 스스로 올해 1년간의 활동을 담아낸 논문집(‘성곽문화의 꽃 화성을 말한다’)을 발간한 사례를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청명고 1학년 함혜선 학생은 “다양한 나이의 학생들이 참여해 그 동안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알 수 있었고 우리 문화재의 실태와 문제점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청명고 장미애 교사는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큰 보람”이라고 말하며 “오늘 행사를 계기로 참여 학생이 더 늘어나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원석 강·대형 기자 kny@eduyonhap.com

## 우리말 다듬기

### ‘함께 하는 우리말 여행’

#### ‘우리말 다듬기’

##### ▷ 다듬고 있는 말

‘캠프파이어(campfire)’

투표기간 : 12월 08일 ~ 12월 21일

투표 중인 후보어

① 모꼬지불놀이(모꼬지(엠티)에서 한데 어울려 즐기는 불놀이)

는 불놀이)

② 아영불놀이(아영지에서 한데 어울려 즐기는 불놀이)

③ 화톳불놀이(화톳불(한데 장작을 모아 질러놓은 불)을 둘러싸고 갖는 놀이)

④ 모닥불놀이(모닥불을 둘러싸고 한데 어울려 즐기는 놀이)

⑤ 모닥불한마당(모닥불을 둘러싸고 한데 어울려 즐기는 놀이)

##### ▷ ‘어떻게 바꿀까요?’

‘리콜(recall)’

투표기간 : 12월 8일 ~ 12월 21일

‘리콜(recall)’을 대신할 우리말을 찾아주세요!

〈보기〉 가숙 페달 결합으로 미국에서 판매된 400만 대의 자동차를 리콜 조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어원은 이번에 다듬을 말로 회사 측이 제품의 결함을 발견해 보상해 주는 소비자 보호 제도를 뜻하는 ‘리콜(recall)’을 선정하고 이를 대신할 우리말 제안을 받고 있다.

※ 국어원에서는 ‘리콜’을 이미 ‘되돌리기, 소환 수리제’로 다듬은 바 있지만, 널리 쓰이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새로 다듬는다고 밝혔다.

투표기간은 12월 21일까지이며, 투표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http://www.malteo.net)’을 통해 진행된다.

▶ 후보어를 제안해 주세요.

##### ▷ ‘이렇게 바꿨어요!(다듬은 말)’

‘팝업창’ ▶ ‘일림창’

국립국어원은 ‘특정 웹사이트에서 어떠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 갑자기 생성되는 새 창’을 가리켜 이르는 ‘팝업창’의 다듬은 말로 ‘일림창’을 최종 선정했다.

국립국어원은 ‘팝업창’을 대신할 우리말을 확정하고자 누리꾼이 제안한 432건 가운데 ‘일림창’, ‘불쑥창’, ‘피움창’, ‘반짝창’ 등 모두 넷을 후보로 해 투표를 받았다. 그 결과 모두 1579명이 투표에 참여해 ‘일림창’은 1009명(63%), ‘불쑥창’은 164명(10%), ‘피움창’은 313명(19%), ‘반짝창’은 93명(5%)이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결과에 따라 국어원은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일림창’을 ‘팝업창’의 다듬은 말로 결정했다.

##### ‘멘토(멘터)’ ▶ ‘인생길잡이’

‘새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 도움을 주는 조연자, 또는 후견인’을 가리켜 이르는 ‘멘토(또는 멘터)’의 다듬은 말로 ‘인생길잡이’를 최종 선정했다.

국립국어원은 ‘멘토(또는 멘터)’를 대신할 우리말을 확정하기 위한 누리꾼의 제안 362건 가운데 ‘조연자’, ‘앞길조연자’, ‘인생길잡이’, ‘인생도우미’, ‘삶도우미’ 모두 다섯을 후보로 해 투표를 받았다.

그 결과 모두 1,488명이 투표에 참여해 ‘조연자’는 395명(26%), ‘앞길조연자’는 126명(8%), ‘인생길잡이’는 745명(50%), ‘인생도우미’는 164명(11%), ‘삶도우미’는 58명(3%)이 지지했다.

국어원은 이에 따라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인생길잡이’를 ‘멘토(또는 멘터)’의 다듬은 말로 결정했다.

##### 알쏭달쏭 우리말

###### ▷ ‘주니’

「명」(주로 ‘나다’, ‘내다’와 함께 쓰여) ① 몹시 지루함을 느끼는 실증. ② 이제 이 일은 주니가 나서 못하겠다.

② 두렵거나 확고한 자신이 없어서 내키지 아니하는 마음. ③ 이 사람이 고수도로에 차들이 달리는 것을 보고 주니가 나는 모양이군.

###### ▷ ‘속다’

「동」 ① 앞으로나 한쪽으로 기울 어지다. ② 좁다란 두 바위 틈으로 올라가서 커다란 바위가 앞으로 속고 아래가 움푹하게 패어 들어가...

② 기운 따위가 줄어들다. ③ 가을바람에 무더위가 한풀 속었다.

###### ▷ ‘오목조목’

「부」 ① 고르지 아니하게 군데군

데 둥그스름하게 패거나 들어간 모양. ② 비가 와서 오목조목 땅이 패었다.

③ 자그마한 것이 모여서 아무진 느낌을 주는 모양. ④ 큰 반달이 위에 개어 얽은 이불을 덮은 이불보가 드물게 고왔다. 예쁘게 오목조목 맞춰 이은 조각보였던 것이다. 〈한무속, 만남〉

자료제공 국립국어원, 정리 양원석 기자

##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위한 결정판

#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 제2판 최신판 출간 • 조만현 · 한승훈 공저 • 청목출판사 간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제2판 | 한승훈 공저

**책의 특징**

1. 수험에 필요한 필수내용의 핵심을 요약하였다.
2. 최신 법령 (2009년 3월 이전법률) 빠짐없이 명다하여 반영하였다.
3. 영역별로 1장씩씩 적신화 하여 30장으로 나누어 편집하였다.
4. 강좌별 확인학습을 위한 중요문제를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다.
5. 국내 및 해외는 사회복지법제 전공자 (법학박사)가 저술하였다.
6. 수험에 필요한 요약법도도 부록화 하였다.
7. 개념상 혼란을 초래하는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8. 한국연구정보시스템 (Study.co.kr) 등 검색 장외로게도 사용하고 있다.

항상 좋은 책으로 보답하는 - 청목출판사 TEL: 02) 849 - 6157